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3 No. 1, March 2020, pp.126~149.*
Copyright©2020,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doi.org/10.22755/kjchs.2020.53.1.126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른 북한 구석기 연구 변화

이형우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cro0107@gmail.com

국 문 초 록

1950~60년대부터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의 구석기 고고학 연구는 서로 다른 궤적을 그리며 달려왔다. 수십 년간 서로 다른 가치의 구석기 연구를 해 온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구석기 고고학의 궤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궤적이 놓인 정치·사회적 지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구석기 고고학을 '읽기' 위해서는 문헌의 정보를 살피는 동시에 문헌의 밖을 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북한의 구석기 고고학을 읽는다는 것은 고고학적 연구와 함께 북한의 정치·사회적 특성을 연동하여 살핀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메시지나 사회적 변혁에 따른 구석기 고고학의 변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서정리 사업'이라는 정치·사회적 사건과 이에 따른 학술 자료 인용의 관계성은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정치·사회적 일정과 관련하여 북한의 구석기를 읽기 위해서는 북한의 구석기 연구를 고고학적 자료와 같이 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고학적 자료를 각각의 속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950~6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북한의 구석기를 여러 속성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여러 속성, 즉 세부적인 연구 단위를 찾고 그 연구 단위의 변화를 읽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 구석기 연구 단위는 편년 연구, 사회 진화, 유물 조합, 인류 진화, 지질 환경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해당 다섯 가지 연구 단위의 세부적 내용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 세부 연구 단위의 변화는 크게 1950~60년대 이후, 1970년대 이후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 나누어 관찰이 가능하다.

새로 조사된 고고 자료로써 각 연구 단위의 내용은 누적되는 방향으로 변화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종의 대응도 관찰된다. 각 연구 단위의 표지적 내용은 대체적으로 서로 대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편년 연구의 특정 표지 개념은 인류 진화의 특정 표지 개념 그리고 사회 진화의 특정 표지 개념과 대응이 된다. 그 대응을 살펴보면 마치 잘 짜인 오면체 구조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각각의 연구 단위가 서로 공고히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연결의 특징도 관찰된다. 이를 가능케 하는 중심 주제는 핏줄로 대표되는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초기 구석기 연구를 벗어나 '조선민족' 개념의 확산 이후, 기원, 계승, 계통은 구석기 연구에서도 중요한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담론을 담는 기능으로 각 연구 단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있어 연구 단위는 서로 공고히 연결되어 있다.

주제어 북한, 구석기, 핏줄(피줄), 정치·사회적 요소

투고일자 2019. 12. 05 ● **심사일자** 2020. 01. 21 ● **게재확정일자** 2020. 01. 28

CC BY NC ND

Ⅰ. 서론: 남한의 시각에서 본 북한의 구석기

북한 구석기 고고학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북한 구석기에 대한 내용은 부분적으로는 익숙하다. 남한 교과서에 흔히 등장하는 북한 구석기 유적의 명칭은 북한 구석기 고고학을 낯설지 않게 한다. 그러나 북한 구석기에 대해 한 발자국만 들어가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북한의 구석기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도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 소모가 필요하다. 북한 구석기의 문이 보여 그 문을 쉽게 열었다 싶은 순간 전혀 다른 또 다른 문들이 겹겹이 놓여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듯 북한 구석기 연구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1970년대부터 한반도 구석기 연구의 서두는 북한 구석기 연구 사례로부터 시작하곤 하였다. 학술지(손보기 1972)뿐 아니라 단행본(국사편찬위원회 1981: 1983)을 통해서도 북한 유적의 소개는 꾸준히 전개되었다. 단속적인 유적 소개에서 보다 적극적인 전개는 이른바 '87년 체제'[1]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걸친 국가 전 영역의 변화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 1987년 이후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보다 유연해지면서 관련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학사적 측면에서 북한 고고학을 살피는 동시에 구석기 연구의 검토(이선복 1992), 북한 구석기 연구가 활발하였던 1950, 1960년대 북한 구석기시대사 연구(한창균 1999a: 1999b)가 있었다. 또한 구석기는 아니지만 북한 고고학 전반을 다루면서 구석기 연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학자의 연구(이광린 1990), 그리고 제4기 고환경과 시기 구분의 문제(한창균 1990)와 북한 구석기 유적의 검토와 분석 연구(한창균 1997)등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구석기 유물을 포함한 석기 연구(한창균 2000), 북한에서 발견되는 호모니드 화석에 대한 분석 연구(박선주 2005; Norton 2000; Bae and Guyomarc'h 2015)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선사 연구에 중심적인 연구를 진행한 학자 중심의 학사적 연구(한창균 2013; Lee 2013)를 들 수 있다. 또한 북한 선사시대를 전반적으로 조망한 연구도 있다(이기성 2015).

2000년대 와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87년 체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한 연구가 꾸준한 확장성을 가지고 이어졌다고 보긴 힘들다. 남한 구석기 연구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큰 담론으로 확장되었다고 결코 보기 힘들다. 북한 구석기 연구가 확장성을 가지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는 남한에서의 북한 구석기 연구는 직접적인 교류나 실제 조사가 아닌 북한에서 발간되는 고고 자료에만 의존한다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즉, 남한에서의 북한 연구는 북한의 1차 결과물에 답신을 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결코 고고학적 자료의 직접 관찰을 통한 연구가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차 결과물의 양적 그리고 질적 문제가 바로 다음 연구에 영향을 주게 된다. '87년 체제' 이후 자료 자체의 접근 가능에 가졌던 흥분이 지난 시점에는 자료의 양과 질의 문제에 눈을 돌리기 마련이다. 해당 자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자료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자연적인 물음에 충분한 답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역시도 문제의 단편일 수 있다. 자료의 양과 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은 어쩌면 단지 피상적인 문제 중의 하나일 수 있다. 설사 자료가 쌓여있다고 할지라도 남한과 북한의 학문 생산 방식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자료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각이 다르다면 아무리 많이 쌓여있다고 할지라도 그

1 1987년 민주 항쟁과 그리고 이어서 발현된 9차 헌법 개정은 한국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체제'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학술 연구 대상으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그간의 경직성에서 보다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다각화된 시각이 실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토대가 87년 체제 이후 마련되었다고 본다.

자료는 한계에 마주칠 수밖에 없다.

북한 학계에서는 1960년대까지 보였던 비판적 성격은 1970년대부터 관찰되지 않는다. 논쟁과 새로운 시도가 과연 1970년대 이후 꾸준히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초기 북한의 학술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학술지로 보이지만 이후의 학술지는 어쩌면 공보(公報)의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북한의 학술지를 지금의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큰 시각차를 가지기 마련이다. 그 시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북한 연구에 대한 한계성에 더 빠지게 된다. 크게 보면 남과 북의 학문 체계, 작게 보면 남과 북의 구석기 연구에 대한 시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 두 체제 사이의 차이성 인식은 이후 서술할 구석기시대 각 연구 단위인 편년 연구, 사회 진화, 유물 조합, 인류 진화, 지질 환경이 과연 어떠한 의도로 이루어졌고 이들의 조합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Ⅱ. 구석기 고고학 1차 결과물의 인용 패턴

북한의 출판물이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공보 성격을 가지는지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보아도 최근 북한 학술지에서 발견되는 정치적 내용 등을 살피면 연구 결과물이 정치·사회적인 일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를 받게 된다. 출판물과 정치적 일정의 연동성을 가늠하게 해 주는 요소는 개찬(改竄)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공식 문서에서 텍스트 고쳐 쓰기인 개찬은 상당 부분에서 발견된다. 그 목적은 현실의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일종의 정당성 부여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서동만 2005). 특정 인물이 한 때는 동지였으나 현재는 대척점에 있는 경우, 그 특정인과 관련된 자료의 새로 쓰기가 발생한다.

북한에서 일제시대의 특정 활동은 현재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주요 골격이 된다. 예를 들어 도서『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는 1932년부터 1945년 기간 동안의 활동을 다루었다. 해당 도서는 1959년 발간된 이래로 주민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조은희 2012: 118). 1959~67년까지 발간된 이후 1968년 재판이 되는데 개찬이 관찰된다. 1960년대 숙청된 인물들은 초판과는 달리 삭제되었다(이종석 2000: 53).

이러한 개찬과 관련해서 '북한의 구석기 관련 출판물의 개찬의 가능성은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서동만에 의하면 개찬의 대상이 된 공식 문서란 당대회 등 공식 집회의 보고나 결정서, 당의 역사적 내용을 다룬 문건 또는 군의 기념 연설 등을 지칭하고 있다(서동만 2005: 31). 그렇다면 고고학 학술지도 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석기 연구는 기본적으로 고고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고고학과 관련된 학술지의 현황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직·간접적으로 고고학과 연관된 학술지의 시작은 1940년대말 부터이다. 1948년『력사학제문제』를 시작으로『문화유물』,『문화유산』,『문화유물』,『고고민속』,『조선고고연구』,『력사과학』,『유적발굴보고』,『고고민속론문집』,『민족문화유산』을 통해서 고고학 관련 연구가 지속되었다(표 1). 한국 전쟁 이전에 발간된『력사학제문제』,『문화유물』은 만 2년 발행의 역사를 가진다. 전쟁 이후『문화유산』,『문화유물』,『고고민속』,『력사과학』이 발간되었고 후술할 1967년 이후 이른바 '도서 정리 사업(학술지대정간)' 기간 중 모두 정간된다. 해당 기간 중『유적발굴보고』와『고고민속론문집』이 빈자리

표 1 북한 고고학 관련 학술지 발간과 발간 기간

학술지	기간
역사학제문제	1948~50
문화유물	1949~50
문화유산	1957~62
고고민속	1963~67
조선고고연구	1986~
력사과학	1955/67/76
유적발굴보고	1956~85
고고민속논문집	1969~88
민족문화유산	2001~

※ 참고 수정: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를 대신하였다. 1986년 발행된『조선고고연구』는 현재까지도 북한 고고학의 중심적인 학술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0년대 와서 보다 대중적인 성향이 강한『민족문화유산』이 발행되고 있다.

도서 정리 사업은 특정 학문 분야의 문제가 아닌 북한 학계 전반에 걸친 일대 사건이었다. 1967년을 끝으로『철학연구』도 정간된다. 이후『조선고고연구』의 창간 동일 연도인 1986년에 복간된다(전미영 2008).『력사과학』도 동년 1968년에 정간되어 1976년에 복간된다[2].

1960년대 도서 정리 사업은 단순한 학술지의 문제를 넘어서 북한 지식인의 전반적 사상 검열의 일환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기간도 상당했는데,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오경숙 2004). 이러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검열을 가능하게 한 근거는 북한에서 헌법 이상의 규범력을 가진 교시와 관련이 매우 깊다. 1967년 이른바 '5. 25 교시'로 알려진 '당면한 당선전사업방향에 대하여'라는 김일성 교시(전미영 2011)가 그 시작이 되었다. 사상 검열은 이른바 '불온한 도서'의 조사로 시작된다. 대상은 전국 기관의 출판물뿐 아니라 개인 소장 출판물에도 이르렀고, 출판물을 넘어서 불순하다고 판단되는 인물 자체도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오경숙 2004: 335).

학술지의 대정간 그리고 광범위한 검열은 지식인에게 1967년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세계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그 이후 정치적 맥락에 부합하는 개찬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고고학 영역 중 구석기 고고학 관련 출판물에서 과연 개찬이 있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개찬의 증거는 원발행본 외에 재발행본이 있었는지 유무의 판단과 원발행과 재발행 사이의 차이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필자 능력의 한계일 수 도 있지만 현재 남한에서 유통되는 북한 학술지 특히 북한 구석기 고고학 관련 부분에서 개찬 증거는 확인하기 어렵다[3].

만약 개찬이 되었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 중 한흥수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 그는 조선의 구석기 존재의 유무와 관련하여 해방 이전부터 논의를 시작한 대표적인 북한의 고고학자이다. 그의 학문적인 성향을 본다면 다분히 마르크스적 고고학을 주장하는 학자로 판단된다(한창균 2013). 당시 중요한 선사 고고학자인 도유호와 비교해서 이른바 부르주아 고고학으로 평가 절하된 문화사 고고학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볼 때(한창균 2013: 86), 그가 학문적인 이유로 숙청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은 하기 힘들다. 그러나 그의 공식적인 행보는 1952년을 끝으로 관찰되지 않는다(한창균 2013). 1959년에 와서 숙청을 암시하는 관련 내용이『문화유산』에 실린다. 림화, 리태준 그리고 김남천과 함께 그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내용이 보인다(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9: 4)[4].

현재 남한에서 한흥수의 글은 정권 수립 이후부터 1950년까지(한흥수 1948, 1949, 1950b, 1950a) 볼 수 있다.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남한에서 유통되는 글과 북한의 경우가 과연 동일한 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남한에서 관찰되는 자료를 보아서는 개찬이 이루어졌다는 판단은 어렵다.

그렇다면 개찬의 증거가 없으니 북한 구석기 고고학은 정치적인 일정과 상관이 없는 학술 출판이 가능한가에

2 1967년 74호 이후 1976년 77호로 복간되는(김용현 2015) 관계로 75, 76호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해에 발간되었는지에 따라서 연도는 달라질 수 있다.

3 현재 남한에서의 자료는 그 경위가 일정하지 않겠지만 상당수는 일본을 거쳐서 유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북한에서 소비되는 자료와 완벽하게 동일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든다. 만약 1962년에 출판된 학술지가 일본에 유입되어 남한으로 왔다면 남한 학자가 보는 것은 원발행본만을 보는 것 일 수 있다.

4 한흥수가 숙청 또는 그와 유사한 일을 당한 시점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한흥수와 연관된 인물들의 정황 자료로써 파악이 가능하다.『문화유산』에 실린 자료로 본다면 '부르조아 반동 문학 체계를 수립하려고 시도한'(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9: 4) 문구와 함께 한흥수의 이름이 거명된다. 추정하건데 당시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당계 숙청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흥수와 같이 숙청된 인물은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림화, 김남천, 이태준이다. 이들은 모두 남로당계 문학인으로서 1956년 이전에 이미 숙청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동만 2005: 528). 따라서 시점은 1952년에서 1956년 이전으로 보인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숙청의 내용이 공식으로 문건에 나타난 시점이 언제인가에 있다. 여타의 모든 매체를 살피지 않아서 확인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고고학 학술지인『문화유산』에는 1959년도에 알려진다.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도서 정리 사업 이전의 주요 학자들의 글이 과연 최근의 북한 학계에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면 개찬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적 일정과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구석기 고고학과 관련된 출판물인『조선민족의 역사적 뿌리』(장우진 2002b)에서 인용 문헌은 총 74건 등장한다(표 2). 이 중 도서 정리 사업이 발생한 시점인 1967년을 포함하여 그 이전 자료의 인용은 불과 5회에 머무른다. 3회는 러시아어 자료이고 2회는 영문 자료로써 북한의 학술자료는 전혀 인용이 되고 있지 않다.

이보다 구석기 고고학의 장르에 더 부합된다고 판단되는『인류학(2판)』(장우진 1988),『조선서북지역의 동굴유적』(인류진화발전사연구실 1995)을 살펴보았다(표 2).『인류학(2판)』의 경우, 전체 저서와 논문의 수는 11편이다. 그중 1968년 이전 자료 중 북한 자료는 없고 러시아어 자료 1권뿐이다.『조선서북지역의 동굴유적』에서는 58편의 자료가 관찰된다. 조선어 23편, 중국어 16편, 러시아어 4편, 일어 4편, 영어 1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5]. 1968년 이전 북한 자료는 단, 3편이 보고된다.『궁산 원시 유적 발굴 보고』(1957),『지탑리 원시 유적 발굴 보고』(1961),『금탄리 원시 유적발굴 보고』(1964)이다. 이중『금탄리 원시 유적 발굴 보고』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집체적 연구 결과로 실명이 없다.『금탄리 원시 유적 발굴 보고』의 저자는 김용간인데 도서 정리 사업 이후에도 꾸준히 활동하는 학자인 관계로 개찬 또는 그에 준하는 대상의 연구자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추정한다면 도서 정리 사업 이후 북한의 구석기 연구자들에게 1968년 이전의 인용에 대해서 무언가 조심스러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부조선지역의 구석기시대유적』(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에서 인용한 자료는 11건 그리고 인용 횟수는 18회이다. 1968년 이전의 해외 자료는 없고 북한 자료는 1건이 있다. 1965년『고고민속』에 소개된「굴포 문화에 관한 그 후 소식」으로 도유호와 김용남의 글이 그것이다(도유호·김용남 1965). 도유호의 말년에 대해서 잘 알려진 바는 없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그의 글은 북한 학계에서 찾을 수 없다. 김용남도 1965~75년 사이동안 그의 기록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그 이후 그의 글은 고고학 학술지 등을 통해서 찾아진다. 만약 해당 글이 공저가 아니고 도유호 혼자 쓴 글이라면 과연 인용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정간 시기 이후 인용에 있어서 특정 시기의 자료 즉, 정간 시기 이전 자료에 대한 인용의 제한성이 관찰된다. 북한의 구석기 고고학 관련 출판물을 모두 살핀 것이 아니기에 확증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구석기 고고학과 정치성에 관한 어떠한 관계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2 일부 도서를 통한 1968년 이전의 북한 자료의 인용 정도

구분	1988	1995	2002	2009
인용 횟수	N/A	N/A	78	18
인용 자료 수	11	58	74	11
1968년 이전 북한 자료 수	0	3	0	1
1968년 이전 해외 자료 수	1	8	5	0

※ 표에 명시된 1977, 1988, 1995, 2002는 각각 (장우진 1988), (인류진화발전사연구실 1995), (장우진 2002b),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이다.

Ⅲ. 북한의 구석기시대의 인식

북한의 구석기 조사의 시작은 주지하는 바, 1962년 굴포리 유적 조사라고 할 수 있다(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3). 그러나 구석기에 대한 인식은 이미 이전부터 보인다. 유적 조사 이전 구석기와 관련된 인류 기원 관련 논문(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2), 제4기, 고생물 및 빙하기 관련 글(도유호 1962; 박준석·최현모 1961; 로영대 1962), 구석기에 대한 정의(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2)등을 보면 1960년 초반부터 해당 분야의 인식을 읽

5 영어 11편은 서구권 출판 자료 5편, 일본 출판 자료 2편, 중국 출판 자료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만몽학술조사'[6]라는 일제 시대 북부 조선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조사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북한 고고학 초기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도유호와 한흥수의 학문적 배경에서 찾아진다.

동관진(강안리)은 만몽학술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성과이면서 동시에 이는 이른바 '15년 전쟁'의 과정 중의 하나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5년 전쟁(정규영 1999)으로 불리는 1931년 만주 사변부터 1945년 일본의 패전에 이르는 일본에 의해서 일어난 아시아에서 벌어진 전쟁 기간 중, 동관진은 조사되었다. 조사 초기에는 동물 화석에 주안점이 있었으나 이후 연구 결과는 나오라 노부오(直良信夫)에 의해서 구석기 존재 소개(배기동 1990; 성춘택 2017)에 이르게 된다. 조사단의 이름 '만몽(滿蒙)'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주안점은 한반도가 아니었다. 따라서 동관진의 중요성은 한반도 내의 유적이라는 의미보다 광의적인 공간 속에서 이해가 필요하다(성춘택 2017). 현재 입장에서는 동관진은 한반도의 한 지역이지만 당시의 입장은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1950~60년대 북한의 자료에서 구석기와 연해주(김용간 1958) 구석기와 흑룡강(도마쉐브쓰끼 1957) 또는 안가라 강과 구석기(김용남 1960)등을 보면 연구 초반부터 한반도 밖의 유적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30년대 당시 동관진에서 발견된 동물 화석과 석기 유물 자체의 영향도 있지만 당시 만몽학술조사로 발견된 구샹툰(顧鄉屯) 유적(성춘택 2017)과 같은 한반도 밖에 있는 유적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구석기의 초석을 다진 학자로서 도유호와 한흥수를 들 수 있다. 두 학자 모두 당시로선 흔치 않은 유럽 선사 고고학 또는 구석기 고고학의 직·간접적 경험을 한 학자들이다. 즉, 유럽의 구석기시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식견이 있었다고 본다. 도유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과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에서 수학하였고 한흥수는 스위스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Weltgeschichte der Steinzeit(석기시대의 세계사)』를 쓴 멩힌(Oswald Menghin)은 한흥수의 지도 교수이자 도유호의 학문적 은사이다(한창균 2013: 80, 84, 94). 스페인 구석기 연구를 하였던 오버마이어(Hugo Obermaier)는 한흥수의 박사 논문 지도를 하였다(한창균 2013: 85). 따라서 도유호와 한흥수는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당시 흔치 않은 유럽 구석기 고고학에 대한 접촉 창구를 가졌던 학자들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만몽조사로 발견된 결과에 수동적으로 북한 학계의 구석기 연구가 따라갔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1930년대 한흥수가 쓴 글에서 조선의 구석기 존재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들 수 있다(한흥수 1936)[7]. 해당 글은 나오라 노부오(直良信夫)가 동관진에서 1940년에 구석기시대 유적으로 공식 보고(배기동 1990; 성춘택 2017) 이전의 글이다. 구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구석기에 대한 독자적인 입장을 견지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하튼 북한에서 구석기에 대한 관심은 1960년 초반에 갑자기 집중된다. 구체적으로 1963년 굴포리 유적 발표(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3) 이전에 보인다. 제4차 조선노동당 당대회 이후 당의 노선과 지도의 의지가 담긴

6 동관진을 조사한 기관은 만몽학술조사단(滿蒙學術調査研究團)이다. 1930년대 이와 유사한 기관들이 시대의 조류를 타고 많이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는 경성대를 추축으로 만들어진 만몽문화연구회(滿蒙文化研究會)가 있다(정준영 2015). 당시 만몽학술조사단 구성원 중에는 만몽문화연구회에도 적을 두고 있는 인물도 있었다. 하나의 예로 모리 다케오(森爲三) 교수를 들 수 있다. 1935년 제1차 만몽학술조사와 그 결과물에 중심적인 위치에 있던 학자인데, 동시에 만몽문화연구회 평의원이었다(정준영 2015).

7 한흥수의 생각은 해방 이후에도 한반도 내 구석기에 대해서 비교적 비판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흥수 1950b). 1930년대 황해북도 금천에서 구석기 조사를 하였으나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한창균 2014: 4). 즉, 그의 입장은 나름대로 어떠한 학문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아무튼 구석기의 존부에 대한 긍정과 부정 모두 구석기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글로써 구석기 유적 조사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1: 2). 북한의 구석기 유적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로써 1962년 집중해서 발표된 논문에서 찾아진다.

도유호의「고고학이란 어떠한 과학이며, 력사연구에는 왜 고고학이 필요한가?」논문에서 '조선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라는 여운을 남기며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도유호 1962a). 도유호의 동년 다른 글인「빙하기란 무엇인가」(도유호 1962b)에서는 구석기 연구에서 제4기 지질환경의 이해의 중요성과 함께 남한에서도 2000년대까지 꾸준히 등장하였던 알파인 빙하기의 개념이 소개된다. 같은 해 1962년「구석기란 무엇인가?」제하의 논문(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2)은 필자가 도유호임을 생각하게 한다(한창균 1992). 해당 글에서는 유럽의 문화사 고고학적 입장에서 구석기 석기 전통을 설명하고 있다. 발간 시점으로 보아 굴포리를 염두하고 쓴 글인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다만, 공식 발표 이전에 이미 구석기에 대한 인식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1950년대 그리고 1960년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학문의 자유로운 비판이 존재하였다고 본다. 고조선의 위치에 대한 논쟁(이경섭 2015), 도유호와 한흥수의 학술적인 비판(한창균 2013) 등을 보면 구석기 유적 하나가 발견되었다고 학계에서 무비판적으로 인정을 받는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동관진의 경우, 일제에 의한 발굴 조사라는 측면이 작용하였지만, 구석기의 존재가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석기 유적이라고 보기보다는 화석이 발견된 유적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8)[8]. 그럼에도 굴포리 유적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나 비판이 담긴 글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유적 발표 이전에도 구석기 연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Ⅳ. 구석기시대 개념들

1. 1950~60년대: 도입

어느 학문에서나 연구 진행에 따른 개념의 증가와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르는 용어의 변경과 폐기가 있기 마련이다. 북한 구석기의 어제와 오늘을 이해하는데 있어 용어의 변화를 따라감은 해당 학문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

당연히 북한도 고고학은 생소한 연구 분야였다. 더구나 존재를 부정하거나 생각하지도 않았던 구석기 고고학은 관심의 대상은 되어도 이를 실천적 학문 대상으로 옮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실천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북한은 구석기에 대한 개념 이해를 시도하였다. 당시 존재하지 않은 조선의 구석기를 어떠한 개념으로 보려 하였는지는 용어 사용을 통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용한 용어를 살펴보면 우선, 시기 구분과 같은 편년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닿아있는 부분이 많다. 북한에서 초기 구석기시대의 시기 구분을 포함한 개념에 관한 생각이 담겨 있는 글은「용어해설(고고학, 구석기시대, 중석기시대)」(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8)을 비롯한 1962년에 발표된 다수의 논문에서 확인된다.

북한의 구석기 연구를 일종의 고고학적 유물로 치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고고학자가 유물을 다양한 속성으로 나누어 분석하듯이, 북한의 구석기 연구를 하나의 고고학적 유물로 생각하고 다양한 속성으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다. 말하자면, 북한이 그간 구석기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한 연구 단위는 각각의 속성이 될 수 있다. 그 방향은 크게 편년 연구, 사회 진화, 유물 조합, 인류 진화, 지질 환경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초기부터 편년 연구를 포함해서 구석기시대

8 동관진의 해석은 도서 정리 사업 시기를 거치고 나서는 입장이 달라진다. 해방 전 일제 어용학자들에 의해서 구석기가 있는데도 이를 부정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해방 이후 적지 않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구석기 유적으로써 동관진이 부정되었다고 주장한다(장우진 1992a: 8). 이러한 기조는 지속되는데 2009년의 글에서도 동관진의 가능성을 부정한 '우리 고고학자들'(리주현·한은숙 2009: 54)의 행위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해를 위한 주된 연구 단위의 방향이 다면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구석기의 연구에서 연구 단위로써 유물만을 생각하는 등의 단편적인 이해가 아닌 다각적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오면체 조각면에 비유할 수 있다. 각각의 연구 단위, 다시 말해서 편년 연구, 사회 진화, 유물 조합, 인류 진화, 지질 환경은 오면체를 이루는 각각의 조각 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1). 일부는 주된 연구가 이루어지지만 일부는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는 있어도 대체적으로 각각의 조각 면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오면체의 연구단위는 필자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진 것이다. 그 조각 면은 북한 구석기의 연구사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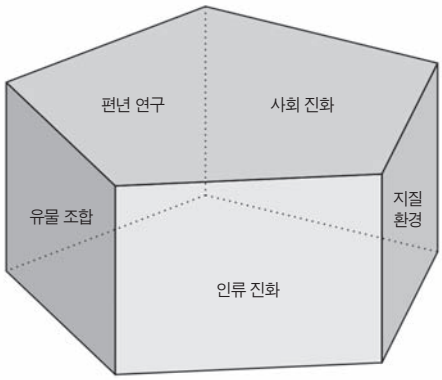


그림 1 오면체 조각면과 같은 북한 구석기 연구 단위 (도형 인용 편집: DEMcAdams 2013).

북한의 구석기 연구 초기의 편년 연구를 살펴보면, 구석기시대를 삼분법으로 나눈다(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8). 전기(하기) 구석기-중기 구석기-후기(상기) 구석기로 설명하고 아울러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사이로 중석기시대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전기 구석기를 하기 구석기 그리고 후기 구석기를 상기 구석기로 부르는 이유는 영어의 'the Lower Paleolithic' 그리고 'the Upper Paleolithic'의 번역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62년 논문에서는 삼분법보다는 이분법을 사용하기도 한다(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2). 중기 구석기를 전기에 포함시키는데, 이는 북한 최초의 공식 유적인 굴포리 유적에서도 적용된다. 초기의 굴포리 유적은 구석기시대 하단(전기)에 굴포문화 I과 II가 해당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다(도유호 1964: 7). 그러나 당시 삼분법도 동시에 사용되고(로영대 1962) 있음을 볼 수 있다.

북한 정치·사회적 지형에 부합되는 사회 진화적 설명은 극히 제한적이다. 후기 구석기시대를 '모가장적 씨족제도'(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8: 75)로 단편적으로 서술하는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문화사 고고학적 입장의 유물 조합에 관한 서구 유럽적 시각은 가감 없이 관찰된다. 「구석기란 무엇인가?」(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2)에서 막스 레닌주의 고고학에서 보이는 사회 진화적 시기 구분을 거의 제외시키고 있다. 반면에 유물 조합 용어에서 서구 유럽적 시각을 담고 있다. 「용어해설(고고학, 구석기시대, 중석기시대)」(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8)에서 언급한 '쉘 문화' (Chellean industry)를 당시 새로이 규정된 '압월문화'(Abbevillian industry)로 고쳐 부르고 있다(한창균 1992: 328). 단순히 용어에서 서구 유럽적 시각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서구 유럽 유행 사조인 문화사 고고학 시각을 다분히 보이고 있다. 동일한 시기라도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가 생산되고 사용될 수 있는 역사 특수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여러 곳에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서구 유럽의 그것을 사용하였다. '무스찌에(Mousterian)', '오리냑(Aurignacian)', '쏠루트레(Solutean)', '마들렌(Magdalenian)' 등의 용어 사용이 보인다. 석기의 유물 조합 용어는 당시 영국을 중심으로 영어권에도 프랑스식 표현을 사용하였기에(Burkitt 1925; Leakey 1934) 서구 유럽의 일반화된 용어 사용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인류 진화의 개괄적 설명을 시도한 논문도 해당 시기에 보인다. 「인류의 기원」(도유호 1962c)은 막스 레닌주의 고고학과 인류 진화의 종의 변화를 동시에 담아낸 글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타 시기의 고고학 연구와는 달리 구석기 연구에서 지질 환경적 입장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제4기 환경, 특히 빙하기와 관련해서 서구 유럽 알파인 빙기를 사용하여 시기 및 환경 구분을 하

고 있다(도유호 1962b). 기본적으로 '귄츠(Gunz)'-'민델(Mindel)'-'리쓰(Riss)'-'위름(뷰름,Wurm)'으로 빙하 시기를 설명하고 있다(한창균 1992: 14). 빙하와 특정 석기시대의 대응을 제시한다.

유적의 연대값이 없던 시기에 일종의 편년의 잣대로 빙하기의 구분과 이를 구석기시대에 대응하는 시도를 하였다. 후기 구석기시대는 '리쓰' 빙하기와 마지막 빙하기인 '위름(뷰름)' 빙하기 시기로 설명하고 있다(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8). 알파인 빙하기 사용도 서구 유럽에서 이미 구석기 개론서에 등장하는 바(Burkitt 1925), 이 또한 유물 조합 용어와 마찬가지로 서구 유럽적 구석기 연구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초반까지의 시도들은 이후 북한 구석기 연구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은 당시의 연구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리주현·한은숙 2009: 48). 그러나 이러한 5가지 연구 단위의 골격 그리고 일부 내용은 결코 부정되지 않고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후 시기의 세부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2. 1970년대 이후: 발견과 정립

1950~60년 초반 북한에서는 정교하지는 않지만 편년 연구, 사회 진화, 유물 조합, 인류 진화, 지질 환경을 모색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과연 유적과 유물이 발견된 이후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있다. 1970년대 이후는 구석기 고고학 조사성과가 현저히 증가한 시기이다. 그리고 정보가 축적되면서 오면체의 연구 단위가 조금씩 다듬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60년대 말 이후 북한에서는 많은 구석기 조사가 이루어진다(표 3). 1968~80년 사이에 조사된 유적(김혜정 198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a)만 보더라도 북한의 구석기 유적의 중요 조사 성과로 평가될 만하다.

이러한 누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종합된 결과물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1958년 발간되어 1962년, 1977년에 걸쳐 수정되어 집필된 『조선통사』(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8)에서 구석기시대 시기 구분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9]. 동년 1977년 『조선고고학 개요』(고고학연구소 1977) 역시 구석기시대에 대한 설명을 개괄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1979년에는 『조선전사』(력사연구소 1979)가 발간되었다. 이들 3종의 도서에서 구석기시대는 비록 개괄적이지만 당시 구석기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당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한다면 구석기 유적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단행본의 출간이다. 1977년 발간된 『조선의 구석기시대』(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가 그것이다.

표 3 1960년대 말 1970년대 주요 성과

유적	위치	시기
검은모루 유적	평양시 상원군 흑우리	1966~1970
청청암동굴 유적	평양시 상원군 상원읍	1969~1970
해상동굴 유적	황해북도 평산군	1967~1970
덕천 승리산 유적	평안남도 덕천군 덕천읍	1972~1973
화천동 유적(화석산지)	평양시 승호구역 화천동	1977
대현동 유적	평양시 력포구역 대현동	1977
만달리 동굴 유적	평양시 승호구역 만달리	1979~1980
매리 동굴 유적	평양시 승호구역 매리	1980
룡곡리 동굴 유적(화석)	평양시 상원군 룡곡리	1980

※ 김혜정 198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a

『조선의 구석기시대』는 구석기시대만을 다루었기에 해당 부분의 자세한 자료를 담아내고 있다. 1950~60년대에 제시된 구석기시대 연구 단위의 유지 여부와 함께 세부 내용의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기본적으로 오면체의 연구 단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서의 변화가 보인다. 시기 분류에서 삼시기법의 정착과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보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60년대 중·후반까지 구석기 시기 분류 명칭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전기 구석기

9 2000년대 이후에도 개정판이 출간된다. 구석기시대의 기본적인 골격은 1977년에 일단락되어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우, 1958년의 자료에서는 전기(하기) 구석기(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8), 1962년 자료에서는 구석기시대 하단(전기) 또는 하부 구석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2; 로영대 1962). 용어는 1970년대 들어와서 통일된다. 전기 구석기는 구석기시대 전기 그리고 그 이후를 구석기시대 중기, 구석기시대 후기로 명명하고 있다.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

1970년대 자료 정리에서 북한은 사회 진화적 기본 골격을 정립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조선통사』의 내용을 기초로 본다면 원시부터 고대사까지 크게는 원시사회-노예소유자사회-봉건사회로 보고 있다(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8). 이러한 시간의 틀은『조선고고학개요』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시사회를 세분한다면 원시무리사회-모계씨족사회-부계씨족사회로 구분하고 있고 이후 노예소유자 사회로 전환된다. 이러한 틀은 197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중·후반에 발간된 개설서인 관계로 당시 발굴 중인 자료를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원시무리사회의 유적으로는 검은모루 그리고 모계씨족사회의 경우는 굴포문화 II기층을 대응시키는 작업을 하였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1970년대에 와서 각각의 연구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유물 조합의 설명에 있다. 시기별 유물 조합 양상에 대한 설명에서 북한은 1950~60년대 초반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물 조합에서 과거 서유럽의 문화사적, 역사 특수주의적 단계를 연상하는 용어의 제한성이 보인다.'아쉘', '무스찌에', '오리냑', '쏠류트레'(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8) 와 같은 서구 유럽식 유물 조합 용어는 드물어진다. 해외 유적의 소개 등에는 사용되지만 북한의 유물 설명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한다. 석기 기술의 설명 즉, 르발르와 기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이 된다.

이른바 표지 석기로 이해되는 석기의 제시를 통한 시기별 이해를 도모하는 노력이 보인다. 전기, 중기, 후기 시기별 석기 형식에 대한 일종의 정리가 1970~80년대 이후 이루어진 듯하다. 구석기시대 전기의 표지되는 석기 형식으로 주먹도끼형 석기, 제형석기, 찍개, 그리고 중기는 찌르개, 긁개, 칼날의 사용을 주장한다. 후기에 와서는 새기개, 칼날 그리고 속돌[11]을 주요 석기로 제시하고 있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김용간 1984).

검은모루에서 발견된 주먹도끼와 관련해서, 남과 북은 접근 차이를 보인다. 남한에서 주먹도끼는 전형적 아슐리안 주먹도끼와의 비교를 통한 문화 전통을 설명하는 주요 고고학적 자료로 간주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모비우스 선(the Movius Line) 등과 같은 문화 전통과 그 공간성의 의미는 주요 연구 주제가 된다. 그러나 북한에서 생각하는 주먹도끼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문화 전통과 관련된 입장, 특히 외부로부터의 전파와 관련된 설명은 피하고자 하는 인상을 가진다. 그러나 최근 조사된 청파대 유적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되면서 모비우스 선을 연상하는 설명이 보인다(한금식 2014). 다만 구체적 언급은 피하고 주먹도끼가 한반도와 아시아 주변국에서 출토됨에 따라서 해당 이론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0년대 이후 유물 조합의 설명에서 석기의 제작 기술 설명도 정립되기에 이른다. 전기의 제작 기술은 내리쳐깨기와 때려내기가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내리쳐깨기는 주먹도끼류 석기를 제작하는데 적용한 기술로 보고 찍개석기의 시초형인 제형석기는 때려내기 기법으로 제작

10 통일성과 지속성의 예외적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보자면, '후기구석기시대사람'(백기하 1990: 11), 이나 '사실상 후기 구석기시대에 많이 선택되어'(어해남 1994: 35)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중국 자료와의 비교 중에 사용되었다. 후자의 경우는 '구석기시대 후기'라는 용어와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다(어해남 1994: 35). 이러한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통일성은 지속된다.

11 속돌은 만달리 유적 조사 이후 돌날 몸돌과 좀돌날 몸돌을 구분하기 시작한다. 좀돌날 몸돌에 해당되는 용어는 초기에는 설명적인 용어로 등장한다. '좁고 긴 격지를 떼고 남은 속돌'(김용간 1984: 75)로 소개된다. 이후 잔돌날 속돌로 정착된다.

되었다. 중기에 와서는 때려내기가 발전하여 여러 개의 격지를 만드는 기법으로 발달하였다. 그리고 후기에 와서는 대고때리기, 눌러뜯기 등의 새로운 제작 기법을 보여준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지질 환경의 이해와 시간의 선후 관계 이해에 도움을 주는 알파인 빙하기 용어는 처음 등장한 이래(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8; 도유호 1962b) 꾸준하게 사용된다. 1970년대 빙하라는 표기 대신 '얼음강'이라는 용어의 사용 등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위름' 빙기라는 표현 대신에 '마지막 얼음강 시기'(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54)를 사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알파인 빙기 용어는 다시 사용되는 것(장우진 2002a)으로 파악된다.

인간 진화의 연구 단위는 많은 변화를 보였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진화'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인류 진화와 관련된 부분은 김정일의 일종의 '교시' 형태로도 살펴진다; '<사람이 장구한 진화발전의 산물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과학에 의하여 확증된 사실입니다.>'(장우진 1988: 69). 따라서 북한에서 인류의 진화라는 부분은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인류 진화는 단선적인 발전 단계로 서술된다고 본다. 인류 진화의 과정을 룽인-원인-고인-신인으로의 전개로 보고 발견된 화석에 이를 적용하는 시도를 하였다. 북한의 글에서는 학명을 정확히 명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하지 않지만, 2000년대 이전까지 능인은 호모 에렉투스 이전의 호미닌 그리고 원인은 호모 에렉투스로 보고 있다. 북한은 검은모루 유적을 원인의 증거로 보고 있다. 그 원인과 동종의 화석 인류를 인도네시아 호모 에렉투스인 자바인 그리고 중국의 주구점인등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고인은 네안데르탈인이라고 규정하고 신인은 현생인류로 보고 있다(장우진 1988). 이러한 대응은 2000년 이후 일부 변화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룽인-원인-고인-신인의 틀은 유지가 되고 있다.

북한에서 화석 인류의 발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고인과 신인의 추가 조사 결과는 개설서를 통하여 보완·제시되고 있다. 1970년대 자료에서 소개된 고인으로서 덕천이 그리고 신인으로서 승리산인에 불과하였다면(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1980년대에 와서 고인으로는 력포사람이 추가되고 신인으로는 만달사람이 추가되어 설명되고 있다(장우진 1988).

3. 2000년대 이후: 보완과 대응

1970~80년대의 기본적 연구 단위는 2000년대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구석기 연구의 새로운 담론의 등장, 기존 이론의 비판과 같은 전개 과정을 보인다고 보기보다는 기존의 연구 단위를 보다 공고히 다지는 전개 과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950~60년대, 발굴이 아닌 문헌적인 입장에서 규정화된 연구 단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유적과 유물을 만나면서 구체적 보완이 이루어지게 된다. 과거에는 문헌을 통한 내용의 구축이었다면 2000년 이후에는 실제 고고학적 자료를 통한 내용의 보완이라고 본다.

또 다른 특징은 5가지의 연구 단위인 편년 연구, 사회 진화, 유물 조합, 인류 진화, 지질 환경은 그 내용이 더욱 축적되는 동시에 각 연구 단위의 표지 개념은 서로 대응되는 양상이 공고해진다. 예를 들어, 시기 분류의 구석기시대 전기는 인류 진화의 원인과 대응되며 유물 조합으로 주먹도끼형과 대응이 되는 양상이다. 그리고 사회 진화적으로 본다면 원시무리사회 단계이다. 물론 각각의 연구 단위의 표지 개념을 이처럼 1:1로 대응시키는 작업은 북한 구석기 연구 초기부터 시도되었으나 이 부분이 굴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공고화되고 있다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기 분류의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의 완성된 편년안의 적용보다는 한반도의 자료에 근거한 편년안을 제시하고 있다. 삼시기 분류법은 이제 북한 구석기에서 의문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삼시기 분류에 따른 각 시기의 상한과 하안이 최근 발굴 조사로 획득한 고고 자료와 연대값을 통해서 보완되고 있다. 1970년대 구석기시대 전기는 검은모루 유적의 동물 화석을 근간으로 약 40~60만

년 전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11). 2000년대에 와서는 현무암의 절대 연대값을 통한 제시로 약 100만 년 전 또는 그 이상을 고려하고 있다(장우진 2009: 29). 검은모루는 제4기 편년으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다. 전기 갱신세로 주장하고 있는데(장우진 2009), 최근 지질학적 기준(Gibbard and Cohen 2008)을 따른다면 전기 갱신세의 끝은 약 80만 년 전이므로 북한의 전기 구석기는 최소 80만 년 전이 된다.

2010년대에 와서 조사된 동암동 유적에서 다양한 절대 연대 측정이 실시되었다. 열형광연대측정법, 전자공명연대측정법, 고지자기연대측정법을 통해서 88만 년 전에 가까운 연대값을 보여주고 있다; 1 문화층(88만±7.4만), 2 문화층(74만±5.2만) (김춘종·한금식 201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b: 1095). 발견된 석기는 1과 2 문화층 모두 주먹도끼, 찍개 그리고 망치가 보고된다. 최근에 검은모루는 1970년대 40~60만 년 전에서 100만 년 전 또는 그 이상으로 편년을 주장하고 있다.

구석기시대 중기의 편년은 1970년대 약 10~5, 4만 년 전으로, 그리고 후기는 약 4~1.4만 년 전을 제시하였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당시는 발굴된 유적의 연대값이 아니고 문헌 인용으로 설정된 연대값으로 편년이 정해졌다. 그러나 2000년대에 와서 화대 유적의 열형광측정법(TL dating method)을 통해 약 30만 년 전 이전의 측정값을 제시하고 있다(장우진 외 2004: 100). 과거 약 10만 년 전을 구석기시대 중기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에서 크게 변경되어 그 시작을 30만 년 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구석기시대 후기의 경우, 최근에 발굴된 룡곡동굴과 랭정동굴에서 4만 년 전 이상의 연대값을 보여주고 있다. 룡곡 유적은 우라늄시리즈법(Uranium series dating)으로 약 49,000년 전, 랭정 유적은 열형광측정법(Thermoluminescence dating)로 약 46,000년 전의 측정값을 제시(고광렬 2015: 27)하고 있다. 랭정 유적에서 공반된 동물 화석은 후기 갱신세 중기부터 보고되는데 이는 4만 년 전 이상을 주장하는 추가적인 자료로 제시된다(장우진 2009: 68). 2013년 단순화된 편년 자료에 근거해서 본다면, 구석기시대 전기(100~30만 년 전), 중기(30~5만 년 전), 후기(5~1.5만 년 전)의 편년이 제시된다(조대일 2013).

사회 진화의 연구 영역에서, 북한에서는 이른바 '역사적 합법칙성'이 사회적 관계의 설명에도 꾸준히 적용되고 있다. 편년 연구에서, 구석기시대 전기와 중기 그리고 인류 진화에서 원인과 고인 단계를 원시무리사회로 규정하고 있다(장우진 1988). 이러한 입장은 2000년대 이후에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김춘종 2009). 그리고 해당 연구는 구석기 연구 영역 밖에서도 일반화된 학문적 정보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7b: 396).

씨족사회의 등장은 구석기시대 후기부터이다. 씨족사회중 모계씨족사회는 신석기시대에 공고해지나 그 최초 등장은 구석기시대 후기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 역시 북한에서 수십 년간 그대로 이어져온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모가장씨족제도(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8)가 주장된 이래로 이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모계씨족사회는 북한의 구석기시대 사회 진화의 설명에 중요한 담론으로 고려된다. 모계씨족사회의 담론 역시 구석기 영역을 넘어서 사용됨이 확인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7b: 880).

검은모루 유적은 2000년대 이후에도 석기의 유물 조합 연구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유물 조합에서 고형의 주먹도끼형 석기와 제형석기를 강조하는데 이는 구석기시대 전기 중에서도 시작을 알리는 의미도 내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 시기의 또 다른 유적인 동암동 유적과 그리고 검은모루 유적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주먹도끼 전형성과 절대 연대값의 제시이다. 동암동에서는 검은모루와는 달리 주먹도끼형이 아니고 주먹도끼로 표현하고 있다. 제작 수법은 검은모루와 같이 동암동의 석기 역시 내리쳐깨기와 때려깨기 수법으로 제작되었다(김춘종·한금식 2016). 그러나 전형성은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판

단된다.

구석기시대 중기의 표지 석기로는 찌르개, 긁개, 홈날, 톱니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석기 형식보다 기술에서 남한의 연구와는 차이성이 보인다. 특징적인 석기 제작 기법으로 르발르와 기술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표지 유물에서도 2000년대 들어와서 달라진 점이 있다. 주먹도끼도 중기의 유물로 삼고 있다(리홍철 2016). 이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고된 청파대 유적의 구석기시대 중기 문화층에서 출토된 주먹도끼(김찬범 2005)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석기시대 후기의 표지적 석기로 생각하는 밀개, 새기개 이외에도 찍개와 주먹도끼도 출토되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256). 그러나 늦은 시기의 구석기시대 후기에는 잔돌날(좀돌날) 그리고 잔돌날 속돌(좀돌날 몸돌)의 발견이 보인다. 대표적으로 만달사람 화석이 발견된 만달 유적에서는 흑요석으로 제작된 잔돌날 속돌이 관찰된다. 북한에서는 잔돌날 속돌은 외부의 문화적 전파 없이 내적 발전에 의한 전개로 파악하고 있다(서국태 2012). 즉, 4만 년 전 이전의 룡곡 문화가 4만 년 전 이후의 만달 문화로의 진행을 주장한다.

석기 제작은 기존의 때려깨기 또는 내리쳐깨기도 사용되지만 대고때리기, 눌러뜯기(눌러떼기) 기법이 사용된다. 즉, 간접 타법에 의한 가공과 가압법에 의한 제작 방식을 해당 시기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본다. 북한에서 석기 형식과 제작 기술의 설명에서 전기의 형식과 기술이 누적적으로 중기와 후기에 이어짐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후기의 밀개, 새기개, 째개, 뚫으개가 이전의 표지 석기와 이전의 제작 기술과 겹치는 경우를 인정한다. 이는 석기의 형식과 기술이 기본적으로 자발생적으로 타 문화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단계로 진행된다는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꾸준히 제기된다. 기술 복합도가 높은 잔돌날석기 역시 보편적으로 어느 집단에서나 일정한 시기가 되면 독립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본다(장우진 2009: 96).

인류 진화 영역은 전세계적인 기준으로 새로운 화석과 기존 화석의 새로운 검토 그리고 보다 진보된 유전자 연구 등으로 새로운 담론이 양산되고 소비된다. 이러한 역동적 영역에 북한 역시 일정 부분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생각하는 호모닌, 호미니드, 또는 최초 사람에 대한 정의가[12] 어떠한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2009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호모 속(genus *Homo*)의 초기 호미닌인 호모 에렉투스(능인)를 그 시작으로 본다. 그리고 편년은 약 2(300)만 년 전으로 보고 있다(김춘종 2009). 그러나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능인의 시작은 200만 년 전 미만으로 보았다(장우진 1986).

한편, 북한의 최초 인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원인은 북한에서 발견되지 않으나 구석기시대 전기의 대표적인 유적인 검은모루를 통해 원인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구석기시대 중기의 인류로 주장하는 고인은 북한에서 출토됨을 주장한다. 력포사람, 덕천사람이 대표적인 예이다. 고인은 네안데르탈인으로 보고 있고 해외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브로켄-힐(Broken Hill)', '라-끼나(La Quina)', '따분(Tabun)', '쓰홀(Skhul 8)'(장우진 1988). 고인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전형적인 고인 비전형적 고인으로 나눈다. 전형적인 고인은 '인류의 진화발전과정에서 사멸한 류형'(장우진 1988: 41), '전형적인 고인은 신인에로 이행하지 못하고'(고광렬 2015: 26)로 표현하고 있다. 반면 력포사람, 덕천사람은 이와는 다르게 비전형적 고인으로 보고 있다.

2000년대 오면서 북한은 고인을 현생 인류 이전의 광의적인 개념인 Archaic(early) *Homo sapiens*로 수정(김성일 2012)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학명과 종명의 등장과 변화에 북한의 기본적인 인류 진화 계기적 순서인 룽인-원인-고인-신인에 대

12 시기에 따른 연구 내용이 달라지므로 일반 명사와 학명의 대응은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문헌에 항상 학명이 표기되는 것이 아니라서 구체적 대응이 불확실할 때가 있다.

응하기가 복잡해진 까닭에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정리가 이루어지는데 능인을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 원인을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s*), 고인은 고형 호모 사피엔스(Archaic(early) *Homo sapiens*) 그리고 신인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13](*Homo sapiens sapiens*)로 부르고 있다(김성일 2012; 고광렬 2015).

2000년대 자료를 기준으로 신인의 유적, 즉 구석기시대 후기의 유적은 상당히 많이 보고된다. 2009년 기준으로 본다면 신인으로 동정된 호모닌 화석은 기존의 승리산 사람 외에, 만달사람, 중리사람, 풍곡사람, 금천사람, 대흥사람, 금평사람, 랭정사람이 있다(장우진 2009). 남·북한 구석기시대 화석 연구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북한에서 신인은 시기적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룡곡 유적을 들 수 있다. 랭정의 경우, 앞서 제시한 룡곡과 함께 5만 년 전에 가까운 편년을 보여주어 구석기시대 후기의 이른 시기의 유적이다. 늦은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은 만달 유적을 들 수 있다. 좀돌날 석기 제작 기술이 발견되는 등 전자의 찌르개, 송곳 등의 격지 석기가 주류를 이룬 것과(이융조 1991) 대비된다.

지질 환경 측면에서 알파인 빙하기 용어는 한동안 사용이 주춤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다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장우진 2002a). 하지만 정밀하고 구체적인 기후 변동을 지시하는 해양 천공 자료를 통한 OIS 또는 MIS 사용은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빙하기 안의 세분화된 기후 변동에 대해서는 인식 변화가 보인다. 예를 들어 리스 빙하기를 3개의 소빙하로 나누기도 한다(장우진 2009: 9). 이는 리스 빙하기가 여러 빙하기가 존재하는 복합기이고 영국 빙하기를 기준으로 울스토니안 복합기(Wolstonian complex)대응된다. MIS 단계로는 6, 8, 10을 포함한다(Catt et al. 2006). 즉 소빙하의 인식은 바로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Ⅴ. '피줄'로서 구석기 연구

북한 구석기 연구에 있어 각각의 연구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 영역은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 하나의 연구 영역 표지 개념은 다른 연구 영역 표지 개념과 대응이 된다. 서로간의 연구 영역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를 연결시켜주는 중심 주제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핏줄, 북한식 용어로는 '피줄'이다. 핏줄이라는 개념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민족을 형성케 하는 주요 개념이다.

북한에서 부정적 의미에서 긍정적 의미로 바꾸어진 단어를 찾으려 한다면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민족 개념을 부르주아를 착취적 지배 담론의 하나로 보는 데서 180도 선회하여 공동체의 가치를 대변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 탈바꿈시켰다(전미영 2018). 이러한 의미 변화는 단지 어휘 사용에 따른 어감 변화를 넘어서 북한의 공식적인 담론인 동시에 궁극적인 지배 수단이 되었다. 헌법을 넘는 규범력이 강한 '교시'에서도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민족의 주장은 1960년대부터 김일성, 김정일의 지도, 연설, 담화를 통해서도 발견된다(최선경·이우영 2017).

민족의 공식적인 새로운 개념 규정의 등장은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1950~60년대 당시 민족의 개념인 언어, 지역, 경제, 문화의 공동체라는 스탈린식 민족의 개념에서 새로운 민족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다. 경제와 문화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핏줄이 들어가게 된다. 민족의 의미에서 가장 높은 가치는 핏줄 그리고 언어가 된다. 핏줄, 언어, 지역이 같은 '조선민족'을 위해서 구석기 고고학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북한의 연구자들은 고민하였을 것이다.

북한에서 민족은 국가와 일종의 등가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종족과 국가'가 결합된 상태

13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Homo sapiens sapiens*)와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의 차이는 현생 인류를 협의적 또는 광의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이선복 2018). 그런데 북한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는지는 고찰이 필요하다.

(최선경·이우영 2017: 9)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조선민족의 시작은 사회 발전 단계상 국가 단계에 최초로 진입한 고조선부터로 보고 있다(장우진 2002b). 국가 단계로만 본다면 민족과 구석기시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핏줄의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구석기시대도 민족의 의미망에 포획이 된다고 할 것이다.

교시라는 절대적인 규범력을 가진 지시 내용 중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구석기시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은 단순한 학술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유구성, 특히 우리 민족의 기원문제와 직접 잇닿아있는 매우 심중한 문제입니다.>'(김춘종·한금식 2016: 15). 해당 내용은 최근 주먹도끼 조사가 이루어진 동암동 유적 관련 논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구석기 연구와 조선민족의 가치가 동일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민족의 의미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는 핏줄은 구석기의 직접적인 연구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의미의 포획성에서 핏줄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핏줄의 연관어를 추론한다면 기원, 계승, 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와 연관이 있는 단어를 북한의 고고학 연구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혈통', '유전적 계승', '단일기원', '연속성 문화집단', '본토기원', '직접적 선조', '직계선조', '원류', '시원'등은 흔하게 찾을 수 있다. 그 기원, 계승, 계통의 연관어는 상당 부분 조선민족으로 귀결된다. 문제는 그 조선민족이 이전의 그 무언가와 핏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짐을 따라가는 일은 구석기 고고학을 비롯한 고고학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된다.

조선민족은 시·공간적으로 조선 그것도 대동강을 중심으로 혈연적 유대감을 가지고 이어짐을 강조한다. 시작점은 구석기가 아니고 현재로 설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는 청동기, 신석기시대에 존재하였던 조선옛류형사람들과 같은 핏줄로 이어진다[14]. 그리고 그들 역시 그 이어짐을 따라가면 공간적으로는 한반도가 여전히 중심이고 시간적으로는 구석기시대 후기를 지칭한다. 그 집단은 북한의 인류학적 분류로 신인이 된다. 만달사람으로 불리는 잔돌날 속돌을 만들던 신인들은 같은 구석기시대 후기의 후반기를 장식한다. 그들의 이어짐을 거슬러 가면 같은 신인이지만 이전에 살던, 즉 구석기시대 후기의 전반기에 살던 신인 룡곡사람을 만나게 된다. 또한 신인을 다시 거슬러 가면 고인을 만나게 된다. 이들도 역시 서로 핏줄로 끈끈히 연결되어 있다. 구석기시대 중기의 고인인 덕천사람 력포사람과 같은 고인들은 신인과 혈연적 관계성을 가진다[15]. 덕천사람은 구석기시대 중기의 전반기에 살던 초기 고인인 화대사람과 이어진다. 이 화대사람은 구석기시대 전기의 주먹도끼형 석기를 만들던 원인의 후예인 것이다[16].

한반도의 핏줄 공동체의 정의가 멀리 구석기시대까지 전개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개념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핏줄의 연속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을 살필 필요가 있다. 시간적으로 민족 이전을 지칭하는 개념어로써 북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인종, 인류, 어족, 씨족, 종족, 족(겨레), 족속 등 다양한 단어가 사용된다. 우선, 인종이 가지는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도 인종주의는 부정적인 어감을 가진다(장우진 1988;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b: 1160). 그러나 인종학은 일정한 학문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4 관련 북한 자료: '조선민족은 혈연적으로 조선옛류형사람들의 피줄을 그대로 이어 온 그의 직접적인 후예이다.' (장우진 2002b: 138).

15 관련 북한 자료: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고인들이 이른시기의 고인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전된 특징을 많이 가지고있는 것은 그들이 신인에로 이행하지 못하고 사멸한 인류진화발전의 곁가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인으로 된 고인이였기때문이다.'(장우진 1988: 79).
'신인의 선조는 고인인데 우리 나라의 신인들은 우리 강토의 고인에서 기원하였다고 할수 있다.'(장우진 외 2004: 68).

16 관련 북한 자료 '우리 나라의 고인들은 신인에로 이행한 그의 직계선조였으며 인류의 진화과정에서 기본줄기에 속하는 류형의 고인이였다고 할수 있다.'(장우진 2009: 38).

북한에서 인종은 현대 생물학에서 밝히는 이른바 종 내 집단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황인종, 흑인종과 같이 지역 환경에 따른 형질적 특성(이선복 2018)을 대인종, 인종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인류는 종 분화를 통해서 구현된 계보에 따른 종들을 지칭한다. 인종과 인류의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인종은 인류의 진화 이후에 나온 집단으로 규정한다. 북한에서 진화는 구석기시대 후기의 신인 즉 현생 인류를 끝으로 더 이상의 생물학적 진화는 없다고 보고 있다. 이를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우리 강토의 신인들이 인류의 진화과정을 마감짓고 현대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자마자 인종적으로 분화하여'(장우진 2009: 52); '신인의 출현으로 지구상에서 인류의 진화발전과정은 기본적으로 끝나게 되었으며'(김춘종 2009: 128).

북한에서 인종은 크게 아시아 대인종, 아프리카 대양주 대인종, 구라파 대인종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그 아시아 대인종 중에서 동북(부) 아시아 인종이 있고 이에 조선사람이 포함된다(장우진 1988). 즉, 시간 순서로 본다면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인종이 형성되고 그 인종 이전에는 대인종의 형태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한반도에 시간을 거슬러서 적용하면 조선민족-조선옛류형사람-동북(부)아시아 인종-아시아 대인종이 된다.

인종의 개념 변화는 북한의 민족주의 강조가 보이는 1990년대 와서 관찰된다. 아시아 대인종, 동북(부) 아시아 인종은 변화가 없지만, 조선옛류형사람에는 특별함을 부여한다. '우리 강토의 선주민인 조선옛류형사람 들은 동부아세아의 옛주민들과 뚜렷이 구별되는'(장우진 1992b: 11)과 같은 가치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인종 형성에 순수한 자연적 요인 뿐 아니라 이른바 사회적 요인도 포함이 된다. 구체적으로 대인종이 형성될 때는 자연적 요소가 그리고 인종이 형성될 때는 자연적 그리고 사회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광렬 1992).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논법으로 본다면 인종 직전의 인류는 신인이다. 외부의 영향 없이 신석기는 구석기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종과 인류는 외부로부터의 유입이 설정되지 않는다. 북한도 신인은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장우진 1988) 또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김성일 2012)를 지칭한다. 따라서 그 기원에 대한 세계적 이론들 중 대표적인 이론인 아프리카 기원설과 다지역 기원설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있다(장우진 2002). 우선 아프리카 기원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기원설은 가장 영향력이 큰 만큼 부르는 이름도 많은데(예: recent African origin of modern humans, Out of Africa model (OoA), Mitochondrial Eve hypothesis, replacement hypothesis, Garden of Eden hypothesis, Noah's Ark hypothesis), 북한에서는 '노아의 방주모형'(김춘종 2009: 119) 또는 '단일지역 기원설'(국립문화재연구소 2017b: 463)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17]. 그러나 이 이론을 따를 경우, 조선 사람 핏줄 연원이 아프리카가 된다. 그러한 연유로 다지역 기원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의 신인은 외부에서 유입된 신인이 아니고 기존 한반도의 인류에서 진화한 것으로 본다(장우진 2002).

원론적으로 본다면 다지역 기원설을 따른다고 해도 한반도가 바로 신인의 기원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물음에 답은 다음과 같다; '우리 강토에서 신인단계의 화석인류가 동부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출현하였다는데'(장우진 2009: 63~64). 신인이 지역 내 기존의 인류에서 진화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기존의 인류의 가능성을 동부 아시아 중, 북한에서 찾으려 한다. 신인은 이른 시기와 늦은 시기의 신인으로 나누어지고 이들은 이어짐의 계보 관계로 고려가 된다(장우진 2009: 72). 약 49,000년 전의 룡곡사람(고광렬 2015)과 구석기시대 말기의 잔돌날을 만드는 만달사람(장우진

17 현재의 보완된 고고학적 증거로는 현생 인류는 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된다(Hublin et al. 2017). 2009년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면 북한은 당시의 공론화된 이론(McDougall, Brown, and Fleagle 2005; White et al. 2003)인 약 16~20만 년 전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9: 84)은 각각 이른 시기 신인과 늦은 시기 신인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여기에 외부에서 유입된 신인은 존재하기 힘들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고인 역시 이른 시기와 늦은 시기로 나뉜다. 늦은 시기 고인인 력포사람은 발전된 고인으로 생각되며 이른 시기의 신인인 룡곡사람으로 계승된다고 보고 있다. 이른 시기의 고인은 화대사람으로 대표된다. 약 30만 년 전으로 생각되는 화대사람(장우진 2009: 39)은 이른 시기 고인으로서 이전의 원인과 이른바 '핏줄의 이어감' 의 의미를 담고 있다.

원인 화석은 발견되지 않으나 석기 증거로 면면한 이어감은 주장된다. 약 100만 년 전 또는 그 이상의 검은모루의 주먹도끼형 석기는 원인의 증거로 생각된다. 최근 조사된 동암동 유적에서 1 문화층 기준 약 88만 년 전의 편년값을 보여주는 주먹도끼(김춘종·한금식 2016)와 선후 관계의 이어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검은모루의 '주먹도끼 모양의 석기'(김용간 1984: 16; 1990: 18), '주먹도끼형 석기'(장우진 2002b: 9)는 전형적 주먹도끼의 '시초형'으로 보고 있다. 반면 동암동 주먹도끼는 '주먹도끼형'으로 부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것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인류의 이어감을 통한 변화는 화석뿐 아니라 석기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선적이다; '어떤 생명체든지 진화과정에 주어진 일정한 방향으로만 변화한다'(장우진 2002b: 27)와 '모든 지역의 석기는 구석기시대 전기로부터 중기, 후기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하나의 방향으로 변천되였다고 말할 수 있다.'(어해남 2016: 3)를 의미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Ⅵ. 결론

1960년대 이래 북한 구석기 연구의 지나간 행적을 10년 단위로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1950년대 문헌을 통한 구석기의 개념 이해, 1960년대 최초 발굴, 1970년대 구석기 개설서 발간, 1980년대 학술지의 재발행, 1990년대 민족주의와 구석기, 2000년대 지속적 연구와 보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950년대 그리고 그 이전의 구석기 존재 가능성의 타진. 1960년대 굴포리 구석기 유적 발견과 그리고 검은모루 유적의 조사 시작은 현재까지도 학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1970년대 당시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발간된『조선 고고학 개요』,『조선의 구석기시대』,『조선전사: 원시편』은 북한 구석기의 학문적 위치를 살피는데 매우 중요하다. 1980년대 학술지『조선고고연구』의 탄생은 도서 정리 사업 이후 연구의 정상화를 알려주었다. 1990년대 민족주의에 대한 정치·사회적 일정과 이에 따른 새로운 구석기 고고학 연구의 설명은 구석기 고고학이 시간적으로 민족과 큰 시간차가 있어도 북한 사회 그 자체의 영향에서 무관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 2000년대 새로운 유적과 유물 그리고 절대 연대값의 적극적 이용 그리고 북한 스스로의 학사 정리는 북한의 구석기 연구의 지나온 과정을 알려주는 동시에 현재의 연구를 가늠케 해 준다.

그러나 북한의 구석기는 다른 방향으로도 정리가 또한 가능하다. 1950년대 종파사건 이후에 구석기 연구의 초기 방향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직 정확히 모른다. 북한의 고고학자들은 자신의 1950년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1960년대 초까지 구석기 또는 구석기 관련 고고학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한편으로 낡은 인텔리로 분류된 학자를 북한의 현재 연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우리는 잘 모른다. 1967년의 5.25 교시와 현재의 구석기 고고학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남한은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북한은 자신의 학문적 삶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붙여 있다.

1970년대 김일성주의는 이전의 사회주의 사상을 대체하였고, 당연히 교시는 모든 학문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76년 11월 28일 교시 내용, '인류발상지에 대한 독창적 사상'(장우진 1988: 78)에 따라, 북한의 연구 방향 변화를 남한의 연구가 얼마나 추적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냉전 이후 고립화의 길을 가게 된 북한의 남은 선택지인 민족이란 담론과 조선민족

제일주의가 구석기 연구에 어떠한 방향성을 부여하였는지 남측 연구가 한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중반 김일성 이후 유훈 통치가 구석기 고고학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현재의 북한의 자료에 의존해 해석할 수밖에 없다. 1980년대 이래로 1990년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제시되는 가족국가적 사고와 고고학 그리고 구석기 고고학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 의문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 글은 2019년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고고학회에서 공동주최한 『분단 70년 북한 고고학의 현주소』 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북한 구석기 연구의 안과 밖」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참고문헌

-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8, 「용어해설(고고학, 구석기시대, 중석기시대)」, 『문화유산』, (5), pp.73~75
-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9, 「민족문화유산 계승 발전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의 빛나는 승리」, 『문화유산』, (4), pp.1~12
-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1, 「제4차 당 대회에서 우리 앞에 제시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5), pp.1~5
-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2, 「구석기란 무엇인가?」, 『문화유산』, (6), pp.48~55
-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3,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 서포항동에서 구석기시대 유적 발견」, 『고고민속』, (2), p.54
- 고광렬, 1992, 「인종의 분화와 그 형성요인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3), pp.37~39
- 고광렬, 2015, 「우리 강토에서 이루어진 화석인류진화의 특성」, 『조선고고연구』 (1), pp.25~28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한국고고학전문사전(구석기시대편)』,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a, 『조선고고연구 해제집 1』,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b, 『조선고고연구 해제집 2』,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력사학제문제·문화유산·문화유물·고고민속 해제집』,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사편찬위원회, 1981, 『한국의 선사문화』, 탐구당
- 국사편찬위원회, 1983, 『한국사론』, 국사편찬위원회
- 김성일, 2012, 「화석인류의 학명을 리해하는대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조선고고연구』 (1), pp.37~39
- 김용간, 1958, 「쏘련 연해주 지방 유적 탐사기」, 『문화유산』 (6), pp.37~45
- 김용간, 1984, 『조선의 구석기시대』, 사회과학출판사
- 김용간, 1990, 『조선고고학전서: 원시편(석기시대)』,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김용남, 1960, 「안가라강 수력 발전소 구역에서의 고고학적 조사 발굴 사업」, 『문화유산』 (2), pp.99~108
- 김용현, 2015, 「북한 『력사과학(1955~2013)』의 구성과 특징 연구」, 『평화학연구』 16 (4), pp.165~186
- 김찬범, 2005, 「청파대동굴유적의 제14지층에서 나온 석기에 대하여」, 『력사 법학』, 김일성종합대학학보, 51, pp.28~33
- 김춘종, 2009, 『사람의 발생과 인류사회의 형성』,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사회과학원 사회과학정보쎈타
- 김춘종·한금식, 2016,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동유적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 pp.15~17, p.34
- 김혜정, 1986, 「발굴 및 답사소식 (1)」,『조선고고연구』 (1), pp.45~48
- 도마쉐브쓰끼, 웨, 웨, 1957, 「1953~1956년 기간에 원동 지방에서의 고고학 연구」, 『문화유산』 (5), pp.38~49
- 도유호, 1962a, 「고고학이란 어떠한 과학이며, 력사연구에는 왜 고고학이 필요한가?」, 『문화유산』 (3), pp.61~65
- 도유호, 1962b, 「빙하기란 무엇인가」, 『문화유산』 (4), pp.62~65
- 도유호, 1962c, 「인류의 기원」, 『문화유산』 (5), pp.49~54
- 도유호, 1964, 「조선의 구석기시대 문화인 굴포문화에 관하여」, 『고고민속』 (2), pp.3~7
- 도유호·김용남. 1965. 「굴포문화에 관한 그 후 소식(학계소식)」, 『고고민속』 (1), pp.54~56
- 력사연구소·사회과학원, 1979, 『조선전사 1: 원시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로영대, 1962, 「함북 화대군 털코끼리 발굴지에 발달한 니탄층의 포자 화분 조합」, 『문화유산』 (4), pp.49~54
- 리주현·한은숙, 2009, 『총론』,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사회과학원 사회과학정보쎈타
- 리홍철, 2016, 「구석기시대 석기의 변천 과정」, 『조선고고연구』 (2), pp.43~45

참고문헌

- 박선주, 2005,「한반도 출토 고인류화석과 동북아시아 고인류화석」,『한국구석기학보』11, pp.1~12
- 박준석·최현모, 1961,「털코끼리가 발견된 함북 화대군 장덕리 4기층의 층서와 고지리적 환경에 대한 고찰」,『문화유산』(4), pp.55~57
- 배기동, 1990,「구석기시대 연구사」,『국사관논총』19, pp.1~52
- 백기하, 1990,「사람머리뼈의 남녀차이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1), pp.7~12
- 브루스, 트리거 (성춘택 역), 2010,『고고학사: 사상과 이론』, 사회평론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조선의 구석기시대』,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조선 고고학 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북부조선지역의 구석기시대유적』진인진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8,『조선통사』, 오월
- 서국태, 2012,「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고고학의 대전성기를 펼쳐주신 불멸의 업적」,『조선고고연구』(4), pp.2~4
- 서동만, 2005,『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선인
- 성춘택, 2017,「한국 구석기고고학사 시론」,『한국상고사학보』98, pp.5~41
- 손보기, 1972,「한국의 구석기 문화」,『백제연구』3, pp.55~72
- 어해남, 1994,「우리나라 구석기시대 석기재료의 특성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3), pp.31~65
- 어해남, 2016,「아시아동부지역 구석기시대 석기의 특징에 대한 견해」,『조선고고연구』(2), pp.2~4
- 오경숙, 2004,「5·25 교시와 유일사상체계 확립」,『한국동북아논총』32, pp.325~44
- 이경섭, 2015,「특집 -북한 고조선 연구의 기원과 성립: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단군신화 인식과 특징 - 리상호와 리지린의 연구를 중심으로」,『선사와 고대』45, pp.59~82
- 이광린, 1990,「북한의 고고학」,『동아 연구』20, pp.105~36
- 이기성, 2015,「북한선사고고학의 패러다임」,『고고학』14, pp.5~32
- 이선복, 1992,「북한 고고학사 시론」,『동방학지』74, pp.1~74
- 이선복, 2018,『인류의 기원과 진화 (제2판)』, 사회평론아카데미
- 이융조, 1991,「북한의 구석기 연구 성과와 분석」,『국사관논총』, pp.1~69
- 이종석, 2000,『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 인류진화발전사연구실, 1995,『조선 서부 지역의 동굴 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장우진, 1986,「최근 인류의 발생시기에 대한 학계의 론쟁점」,『조선고고연구』(3), pp.46~47
- 장우진, 1988,『인류학 (2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장우진, 1992a,「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력사의 유구성과 조선사람의 시원문제연구에서 달성한 성과」,『조선고고연구』(1), pp.7~11
- 장우진, 1992b,「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사람의 인종문제연구에서 이룩한 성과」,『조선고고연구』(2), pp.9~14
- 장우진, 2002a,「우리 나라의 산악빙하와 그것이 화석인류의 생활에 미친 영향」,『조선고고연구』(2), pp.6~10
- 장우진, 2002b,『조선민족의 력사적 뿌리』, 사회과학출판사
- 장우진, 2009,『조선사람의 기원과 형성』,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사회과학원 사회과학정보쎈타

참고문헌

- 장우진, 2012,「우리 나라에서 잔돌날속돌의 시원문제」,『조선고고연구』(2), pp.2~4
- 장우진 외, 2004,『화산용암속에묻힌인류화석』사회과학출판사
- 전미영, 2008,「김정일 시대 북한의 지식인 정책」,『사회과학연구』16, pp.170~99
- 전미영, 2011,「사회변혁기 북한지식인의 역할과 정치의식-북한 학술지 분석을 중심으로(1998~2008)」,『통일과 평화』3, pp.301~44
- 전미영, 2018,「김정은시대 북한 민족주의: 담론문화정책」,『북한학』43, 218~49
- 정규영, 1999,「콜로니얼리즘과 학문의 정치학」,『교육사학연구』9, pp.21~36
- 정준영, 2015,「군기(軍旗)와 과학 - 만주사변 이후 경성제국대학의 방향전환」,『만주연구』20, pp.75~117
- 조대일, 2013,「유물조선민주주의공화국」,『조선의 유적』, 외국문출판사
- 조은희, 2012,「연구논문: 역사적 기억의 정치적 활용: 북한의『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분석을 중심으로」,『통일과 평화』4, pp.111~55
- 차달만, 2013,「유적유물을 통하여 본 대동강류역 청동기시대의 사회관계」,『조선고고연구』(2), pp.2~5
- 최선경·이우영, 2017,「조선민족 개념의 형성과 변화」,『북한연구학회보』21, pp.1~24
- 한금식, 2014,「청파대동굴유적발굴이 가지는 문화사적의의」,『조선고고연구』(4), pp.40~41
- 한창균, 1990,「북한 고고학계의 구석기시대 연구동향 - 제 4 기의 연구와 구석기시대의 시대구분을 중심으로」,『동방학지』65, pp.267~93
- 한창균, 1992,『북한의 선사고고학』, 백산문화
- 한창균, 1997,「북한의 구석기 유적 연구」,『백산학보』48, pp.5~31
- 한창균, 1999a,「1950년대의 북한 고고학 연구」,『백산학보』53, pp.179~218
- 한창균, 1999b,「1960년대의 북한 고고학 연구」,『백산학보』55, pp.5~56
- 한창균, 2000,「북한의 선사시대 뗀석기 연구」,『백산학보』57, pp.5~57
- 한창균, 2013,「도유호와 한흥수: 그들의 행적과 학술 논쟁(1948~1950)」,『한국고고학보』87, pp.76~118
- 한창균, 2014,「일제강점기에 있어 한국 구석기시대의 인식」,『한국구석기학보』29, pp.3~20
- 한흥수, 1936,「朝鮮石器文化槪說」,『진단학보』4, pp.127~55
- 한흥수, 1948,「原始社會史硏究에 關한 覺書」,『력사제문제』(2), pp.117~32
- 한흥수, 1949,「民族文化遺產의 保存과 繼承에 關한 諸問題」,『문화유물』(1), pp.9~39
- 한흥수, 1950a,「朝鮮民俗學의 樹立을 爲하여」,『문화유물』(2), pp.1~18
- 한흥수, 1950b,「朝鮮原始史硏究에 關한 考古學上諸問題」,『력사학제문제』(1), pp.4~55

- Bae, Christopher and Pierre Guyomarc'h, 2015, Potential contributions of Korean Pleistocene hominin fossils to paleoanthropology: A view from Ryonggok Cave, *Asian Perspectives*, 54: 31~57
- Burkitt, Miles, 1925, *Prehistory*,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Catt, John, Phil Gibbard, John Lowe, Danny McCarroll, James Scourse, Mike Walker, and John Wymer, 2006, Quaternary: ice sheets and their legacy. In *The Geology of England and Wales*, 429~467. Geological Society of London
- DEMcAdams, 2013, Pentagonal Prism (Heptahedron),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entagonal_Prism_(Heptahedron).svg)
- Gibbard, Philip, and Kim Cohen, 2008, Global chronostratigraphical correlation table for the last 2.7 million years,

참고문헌

Episodes, 31: 243

- Hublin, Jean-Jacques, Abdelouahed Ben-Ncer, Shara Bailey, Sarah Freidline, Simon Neubauer, Matthew Skinner, Inga Bergmann, Adeline Le Cabec, Stefano Benazzi, and Katerina Harvati, 2017, New fossils from Jebel Irhoud, Morocco and the pan-African origin of *Homo sapiens*, *Nature*, 546: 289~92
- Leakey, Louis, 1934, *Adam's Ancestor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 Lee, Hyeong Woo, 2013, The Politics of Archaeology in North Korea: Construction and Deterioration of Toh's Knowl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Historical Archaeology*, 17: 401~21
- Norton, Christopher, 2000, The current state of Korean paleoanthropology, *Journal of Human Evolution*, 38: 803~25
- McDougall, Ian, Francis Brown, and John Fleagle, 2005, Stratigraphic placement and age of modern humans from Kibish, Ethiopia, *Nature*, 433: 733~36
- White, Tim, Berhane Asfaw, David DeGusta, Henry Gilbert, Gary Richards, Gen Suwa, and Clark Howell, 2003, Pleistocene *Homo sapiens* from Middle Awash, Ethiopia, *Nature*, 423: 742~47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3 No. 1, March 2020, pp.126~149.*
Copyright©2020,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doi.org/10.22755/kjchs.2020.53.1.126

The Socio-Political Significance of Paleolithic Studies in North Korea

Hyeong Woo Lee Professor, Dept. of Archae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Corresponding Author : scro0107@gmail.com

Abstract

Considering significant words that stand for the history of Paleolithic in North Korea, these can be summarized for each decade since the 1960s. The 1960s ought to be when the earliest discovery of a Paleolithic site was made by Korean hands. The 1970s might be the earliest period for textbooks being published that were geared towards increasing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Paleolithic era in the Korean peninsula. The 1980s can be summarized as a period of reissued Paleolithic articles from a newly introduced archaeological journal. The 1990s witnessed efforts to formulate nationalistic interpretations about the Paleolithic period in Korea. The 2000s then synthesized several of these aspects of Paleolithic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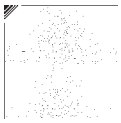
Gulpori, the Paleolithic site that was discovered in the 1960s, holds significance not just because of the discovery itself, but because of its prompt acceptance by North Korean academic authorities. The publications that covered general understanding of Paleolithic archaeology such as *Joseon Gogohag Gaeyo*, *Joseon-ui Guseoggisidae*, and *Joseonjeonsa*: *Wonsipyeon* in the 1970s hold immense significance themselves, as they demonstrate contemporary achievements. Reintroduction of the archaeological Journal, *Joseongogoyeongu* in 1986, is the beacon of alleviation of conspicuous effect to the academic sector. During the 1990s, a new emphasis on nationalism influenced Paleolithic studies. In the 2000s, the formally constructed elements of Paleolithic research such as Paleolithic chronology, social evolution, lithic assemblage, Quaternary studies, and human evolution were consistently refined. Metaphorically speaking, these parts are like a polygonal structure.

As is the case with a polygonal structure, these research aspects are united and work together. Each part affects the others. Although the content of each research aspect has been altered by either academic growth or sociopolitical agenda, the fundamental part of the polygonal structure is not likely to be changed. The structure is solid enough to continue to serve the purposes of North Korean Paleolithic studies.

North Korean Paleolithic archaeology seems to be a juxtaposition; some parts are easily changed while others are not. In order to ascertain these, not only the academic but also the sociopolitical context should be followed.

Keywords North Korea, Paleolithic, Pisjul (Pijul), the Socio-Political factors

Received 2019. 12. 05 ● **Revised** 2020. 01. 21 ● **Accepted** 2020. 01. 28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3, No. 1